
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 도 자 료</b>		<b>재외동포청 최적지</b> <b>인천</b> <b>뿐입니다</b>
	배포일자	2023년 3월 28일(화) 총 2매	
담당 부서	비상대책과	담당자	• 비상대책팀장 김태수 ☎440-5761 • 담당자 이재원 ☎440-5789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**인천 안보책임자들 모여 지역안보현안 논의**  
 - 28일, ‘2023년 인천시 통합방위회의 개최’ -  
 - ‘23년 중앙통합방위회의 결과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’ -

인천광역시는 28일 시청 인천데이터센터(IDC)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, 어창준 17사단장, 이영상 인천경찰청장 등 지역 안보책임자들이 모여 ‘2023년 인천시 통합방위회의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회의는 1분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겸해 개최됐다. 국내외 안보상황 및 지역 군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, 지난달 8일 개최된 ‘2023년 중앙통합방위회의’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, 지난해 시의 통합방위사업 추진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.

특히, 중앙통합방위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으로서 ▲북한의 핵, 미사일 위협 및 고강도 도발대비 ▲테러 및 사이버위협 대비 ▲통합방위태세 강화와 관련해 인천지역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.

아울러, ‘인천시 통합방위예규’ 및 ‘인천시 통합방위작전계획’ 개정안을 심의해, 지역현실에 맞게 현행화함으로써 관계기관 및 부대간 체계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

한편, 시는 지난해에 지역 군부대(17사단, 해병2사단)와 비상시 폐쇄 회로(CC)TV 영상정보 상시 제공 업무협정 및 지역방송사와의 비상대비 방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내 비상식량을 비치(2식분)하는 등 지역 통합방위 기반을 크게 강화했다.

올해는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서해5도 주민 출도 훈련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, 주민대피시설 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, 국지도발 및 대테러 대응 등 각종 통합방위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에 있다”고 강조하고, “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